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갇을 길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용서의 빛을 진 사람” [마 18:32-33]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밭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화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용서는 단지 행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백성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용서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일곱 번이면 될까요? 당시 랍비들은 용서는 세 번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일곱 번을 용서하면 대단한 것이며 굉장히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라웠습니다. “일곱 번 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용서 하거라.”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횃수를 세지 말고, 제한하지도 말고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달란트를 탕감 받은 종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달란트는 도저히 평생 일하며 쓰지 않고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빛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탕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빛을 탕감 받은 종은 사실 용서의 빛을 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빛을 갚을 필요는 없지만, 주인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의 값은 죽음으로 밖에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로 대신 죄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빛, 용서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용서의 빛은 용서로 갚아야 합니다.

만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빛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을 잡고 빛을 갚으라고 욕박지르고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종의 모습을 보면 기가차고 화가 날 것입니다. 자기가 그 엄청난 돈을 탕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갚으라고 난리치는 모습은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고 뻔뻔하고 가증해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 빛을 탕감해준 것 같이 종도 그 동료로 불쌍히 여겨 탕감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 받은 죄인입니다. 주님께 엄청난 죄의 값을 탕감 받고 용서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화가 날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 받았듯이 용서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생명으로 대신 치르시고, 나를 용서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의 삶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삶을 살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가족 되길 바랍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용서 받은 것 처럼 용서합니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용서 받은 것 처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최근에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혹은 아직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2. 당신은 주님께 얼마만큼 용서의 빛을 졌나요? 숫자로 한번 표현해봅시다. 주님께 용서의 빛을 갚기 위해 나는 얼마나 용서를 해야할지 이야기 해 봅시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우리 가족 모두에게 용서의 마음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하기.